

男 아이스하키, 독일의 벽 못넘다

IIHF 월드컵엔진조별 4차전
1-6으로 패배... B조 최하위
라던스키 1골로 자존심 살려
내일 새벽 미국과 5차전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가 월드컵엔진조에서 통산 2번째 골을 넣었지만 독일을 넘진 못했다. 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9일(한국 시간) 덴마크 헤르닝에서 열린 2018 국제 아이스하키연맹(IIHF) 월드컵엔진조 B조 4차전에서 독일에 1-6(0-1 0-3 1-2)으로 패했다. 핀란드(1-8), 캐나다(0-10), 라트비아(0-5)전에 이어 4연패다. B조 최하위다. 그러나 핀란드와의 첫 경기에서 마이클 스위프트(하이원)가 역사적인 월드컵엔진조 1호골을 넣는데 이어 브라 라던스키(한라)가 2호골을 기록, 영패를 면했다. 라트비아와의 3차전 이후 24시간 만에 경기에서 나선 선수들은 체력 부담을 크게 느꼈다. 특히 주축 공격수 조민호(한라)는 경기를 앞두고 어깨 부상을 당해 출전 명단에서 빠지는 악재가 겹쳤다. 독일은 랭킹 7위의 강호다. 지난해 월드컵엔진조에서 8강에 올랐고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달 말 이 대회를 앞두고 가진 평가

전에서 3-4로 선전한 경험이 있지만 본 무대에서는 노련하고 정교했다. 북미 아이스하키리그(NHL)에서 활약 중인 선수가 3명 가세하면서 한층 탄탄한 전력을 과시했다. 한국은 1퍼리어드에서 1실점하며 선전했지만 2퍼리어드에서 내리 3골을 주며 무너졌다. 3퍼리어드에서도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고 2실점, 또 다시 영패의 악몽이 떠올랐다. 하지만 라던스키가 자존심을 살렸다. 3퍼리어드 17분초 독일 진영에서의 페이스 오프에서 흐른 퍽을 골로 연결했다. 한국은 12일 오전 3시15분 미국과 5차전을 치른다. 패트릭 케인(시카고 블랙호크스), 달린 라킨(디트로이트 레드윙스), 크리스 크라이더(뉴욕 레인저스), 캠 앳킨슨(콜럼버스 블루재키츠) 등 NHL 스타플레이어들로 구성된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 3연승(1연장승 포함 승점 8)으로 핀란드(승점 9)에 이어 B조 2위에 올라갔다. A, B조 8개팀씩 총 16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엔진조는 조별리그를 거쳐 8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각 조 최하위팀은 내년 세계선수권 디비전1 그룹A로 강등된다. 한국은 승점 6점 이상을 획득해 잔류를 목표로 했지만 어렵게 됐다. 한국은 4경기에서 2골을 넣은 반면 29골을 헌납했다. 세계와의 격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뉴시스



9일(한국시간) 덴마크 헤르닝에서 열린 2018 국제 아이스하키연맹(IIHF) 월드컵엔진조 B조 4차전에서 독일에 1-6(0-1 0-3 1-2)으로 패했다. 한국의 라던스키가 3퍼리어드 17분초 독일 진영에서의 페이스오프에서 흐른 퍽을 골로 연결했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손흥민, 시즌 11번째 도움 토트넘, UEFA 챔스 진출

EPL 뉴캐슬전 케인 골망 흔들어 1-0 승
골 18개 포함 개인 최다 29개 공격 포인트 기록

손흥민이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침묵을 깨뜨렸다. 소속팀 토트넘 핫스퍼는 내년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했다. 손흥민은 1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장했다. 왼쪽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던 손흥민은 후반 5분 도움을 올렸다.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아 수비수를 유인했다. 다시 내준 공을 케인이 오른발 감아차기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시즌 11번째 도움이다. 앞서 18골을 넣은 손흥민은 개인 최다인 2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토트넘은 케인의 골을 끝까지 지켜 뉴캐슬을 1-0으로 이겼다. 승점 74(22승8무7패)로 3위를 사수하며 레스터 시티와의 최종전 결과에 관계없이 내년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거머쥐었다. /뉴시스

최수빈, IBK기업은행 잔류... 연봉 8000만원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IBK기업은행의 최수빈이 소속팀 잔류를 선택했다. IBK기업은행은 10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최수빈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봉은 8000만원이다. 최수빈은 앞으로 3년 간 IBK기업은행에 머물게 됐다. 최수빈은 2012~2013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6순위로 V-리그에 뛰어들었다. KGC인삼공사 소속이던 지난 시즌 중반 트레이드를 통해 IBK기업은행에 합류했다. 이후 최수빈은 안정된 수비로 힘을 보태며 팀의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에 기여했다. IBK기업은행은 FA 계약 대상자 중 노란, 최수빈과 협상을 마쳤다. 김미연은 도장을 찍지 않았다. 여자부 1차 교섭 기간은 이날 마무리된다. 1차 협상에서 원 소속 구단과 합의를 하지 못한 선수들은 11일부터 20일까지 타구단과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다. /뉴시스

김연경, 아시안게임 참가 선언 "2연속 금메달 목표"

여자 배구대표팀의 최고스타인 김연경(30)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가를 공식화했다. 김연경은 9일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배구국가대표팀 언론 인터뷰에 참석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밝혔다. 올해 여자대표팀은 빠른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15일 개막하는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 네이션스리그를 시작으로 8월 아시안게임, 9월 세계선수권대회(일본)를 치른다.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팀 전력의 중심인 김연경이 필요하지만, 관리가 필요한 국보급 선수에게 3개 대회 출전은 너무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세계랭킹 포인트가 걸려있지 않은 아시안게임 불참이 예상된 이유다. 실제로 중국, 일본 등은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세계선수권에 대비하기 위해 아시안게임에 주축 선수 일부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연경의 생각은 달랐다. 4년 전 인천에서의 좋은 기억을 다시 한 번 후배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김연경은 "사실 나는 큰 욕심은 없는데 다른 선수들이 큰 욕심을 갖고 있다. 2연속 금메달을 따고 싶어한다"며 웃었다. 대신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일정은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발리볼 네이션스리그는 기존의 월드리그와 그랑프리 통합된 것으로 16개팀이 5주에 걸쳐 일정을 벌인다. 김연경은 중국(1주차), 한국(2주차), 태국(4주차) 등 아시아권에서 열리는 대회만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연경은 "(아시안게임 때문에) 네이션스리그에 가지 않는 것이다.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 때문에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상하이와 계약이 끝난 김연경은 여전히 새 팀을 구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단체)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홍보대사 류수영